

속 기록

- 회 의 명 : 제 266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12. 27(금) 15:00 ~ 18:13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2019년 12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포함한 2건의 의결안건과 8건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위원 10인 중에서 9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의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 26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3차 회의에서는 777호부터 782호까지 6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5건은 원안의 결 그리고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4차와 265차 서면회의는 각각 2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5차 서면회의에서 보고되었던 2020년 문예진흥기금 예산에 전년대비 증감 현황은 기획조정부장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초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전차(前次) 서면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 금년도 2,511억 원에서 정부안으로는 111억이 증액된 2,62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5억 8,700만 원이 늘어난 2,677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대비 정부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11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통합문화이용권이 118억 원 늘어났고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 105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94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기타 지역사업 쪽에 7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통합문화이용권 118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내역 안에서 사업 간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과 거의 동결된 수준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그때 보고안건 자료를 설명 드리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이 예술창작지원 안에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20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사 사업 6건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단순히 추가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내역 안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라고 지정대상 단체나 사업이 지정되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요. 6건의 내용은 자료 오른쪽의 국회의결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듯이 ‘수로왕과 허황후’ 스토리 창작오페라가 5억 원, 서울국제무용콩쿠르 5억 원, 2020년 독도사랑축제 2억 5000만 원, 윤이상 평화상 제정 1억 6,300만 원, 국제아트 페어 개최 2억 원, 국제일루전페스티벌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지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공분을 표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안에서 전체적인 증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필요하면 의결사항을 마치고 별도의 시간을 잡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먼저 2개의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처리하고 별도로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안건번호 제 787호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심의가 지난 주 금요일에 끝나는 관계로 사업결과와 심사평가 내용을 넣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원심의 결과를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과의 보고 형식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시공모 보고를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보고 양식을 보시면 올해 문예기금 정시공모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부분이 별첨 자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정심의평가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심의결과 총괄 내역은 기존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요. 추가로 사업별 수도권과 지역의 신청률 대비 선정률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인 별첨2의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 부서장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를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계획 확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었고요. 사업설명회는 9월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0월 초에 부산, 청주, 광주 등 3곳을 돌았습니다.

(3)번의 지원 신청 접수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24일간 지원신청을 받았고요. 총 2,265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건수는 2019년 대비 195건이 감소되었고 22억 정도가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개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7페이지 하단에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지만 심의기준이나 신청서양식, 공고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검토했고 그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10월 정시공모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수시 등 별도 공모로 진행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 구성 및 위촉절차입니다.

아시겠지만 후보단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서 체계화를 했고요. 섭외순위를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위원님들과 사무처, 위원장님이 같이 무작위추첨을 검토했다는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 실험적으로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개 사업에 대해서 '전담심의회위원회'를 시범운영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과 한국

예술창작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의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심의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차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약간 권위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사업부서장이 2차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친절하게 말씀드렸고요. 발표자들도 대부분 앉아서 발표를 하고 토론회 형식으로 2차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시공모 28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전수검토제를 시행했고요. 온라인채점제도 전면 적용했습니다.

심의 시 사업연계 운영이 있었는데요. 시각예술 같은 경우 전시사전연구지원이 이번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 차년도 전시지원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가 면제된다는 것이 사업설명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공간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각예술공간지원은 전년도의 평가부분이 20%에서 25%로 확대해서 환류부분을 심의에 적용하였습니다.

심의과정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공정심의평가관제를 시범 도입했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별도공모 시 관객평가제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공연예술 쪽이 되겠는데요. 쇼케이스를 할 때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신나는예술여행 순회사업입니다. 지역협력형 심의를 도입해서 지역과 함께 선정자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12월 12일에 신나는예술여행은 접수가 마감되었는데요. 약 2,3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가 정시공모 때 순회사업부장이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심의결과 안내 부분에서 심의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총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안내를 드렸고요. 사업부서에서 뭔가 내용이 부실하다면 심의위원들께 연락을 드려서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문제인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선정자에 대해서만 발송을 했다면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메시지를 보낼 때 300건 이상이면 혼란이 있었고 부서별로 일시에 SMS를 발송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엔카스 전산팀에서 아래의 문구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우대를 위한 최소보장제 시범적용입니다.

지난번 보고안건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2020년 공모사업 중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지역 신청률 대비 선정 비율을 가능한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위원회의 방침이 이러니까 최대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것을 심의위원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은 25% 이상인 경우 최소 25% 유지, 25% 이하인 경우 신청률 유지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적용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인력육성 등 11개 사업이고요. 일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올해의신작이나 레퍼토리, 국제교류, 예술창작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결과 신청건수는 총 770건이었고 지역은 244건으로 약 31.7%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선정건수는 총 472건으로 선정건수 대비 31.8%로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 0.1% 이지만 신청대비 약간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 추진 결과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을 받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구성 방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별 심의적격자는 장르별 위원님과 위원장, 사무처의 해당부서에서 각각 필요인원의 2배수 이상을 구성해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서 섭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반영을 위해서 비수도권, 성별, 신진을 안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담심의위원회’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연중 단계별 심의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구성경과와 명단이 이미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현황을 보면 총 28개 정시공모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35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심의위원은 총 20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스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주는 가이드는 이겁니다. 지역전문가와 40대 이하 심의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고요. 특정 성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경로를 보면 전체 201명 중에 65.2%인 131명이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구성되었고요. 전담심의위원은 68명인데 이 중에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전담심의위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아래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37명에 해당하는 분은 후보단 외에서 모셨습니다. 이 분들은 아직 심의위원 후보단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기타 1인은 전담 세무사로 인력양성 사업의 계량심의를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인 예경의 관계자였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전체 201명 중에 150명은 수도권이었구요. 비수도권이 51명으로 25.4%가 지역 심의위원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성별을 보고 드리면 남성이 52.7%, 여성이 4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30대부터 60대가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체 심의위원 201명 중에 약 112명인 55.7%가 30대, 40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50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 30대가 많이 진입해서 전년도 대비 좋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 구성현황은 별첨1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원심의회에 추진에 대해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인력육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수검토제와 온라인채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했구요. 2차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PT/인터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공정심의평가관제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외부 평가관 참관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회의의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적용대상사업은 저희 정시공모사업 28개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PT와 인터뷰심의를 진행되는 사업에 한정해서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구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의 평가업무나 법무, 감사, 윤리, 지원 쪽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희 공정심의부에서 풀을 만들어서 섭외를 했습니다.

사업명과 평가관, 현직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공정심의평가관제를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일단 장점이 되는 부분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들은 내용은 저희 심의제도 운영방식이 다른 유관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빠하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다만, 개선 및 고려사항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한다.”, “2차 심의가 너무 타이트하다.”, “1번과 2번이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틀에 걸쳐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천천히 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혹 연출자로서 선배로서 지도하려는 발언이 좀 있었구요. 반대로 원로들이 PT를 발표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사정과는 별개로 심의의 형평성을 위해서 신청자들에게 시간 엄수에 대해 확실히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체적으로 시간도 재면서 엄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삼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심의에 관련된 질문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플로어에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 평가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단지 시각예술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모든 심의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진행시 소음이 발생해서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심의를 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스팀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난방을 하게 되면 스팀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심의에 방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3페이지 (4)번의 사업별·분야별 지원심의결과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국제교류, 청년예술가, 인력육성이고요. 작년 정시공모와의 차별성은 작년 정시공모에는 순회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예술가가 별도공모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정시공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신청건수는 총 2,265건이고 선정건수는 818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36.1%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액 대비 결정액 부분은 26.6%로 나왔는데요. 사업은 좀 다르지만 작년 정시공모와 비교를 했을 때 선정률은 작년대비 2%가 상승되었고요. 지원결정액 비율은 약 4%가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여예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잔여예산은 문학창작산실의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700만 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3월에 별도공모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은 1차 공모에 80%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20% 예산과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1차 공모 심의에서 발생한 잔여예산을 합해서 3월에 별도 2차 심의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아르크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이번에 전체 공모사업의 60%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40%는 2020년 아르크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3월에 있을 2차 공모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별 지원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신청현황과 지원결정현황을 사업별로 정리했습니다.

문학부문을 문예지발간지원, 문학비평 및 연구조사,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지원선정건수의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지원비율 같은 경우에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양상입니다.

시각예술 쪽은 전시지원, 전시사건연구지원, 비평지원, 공간지원 2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원선정비율은 전시지원이 16.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예술 쪽을 보면 70.4%로 상당히 선정건수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레퍼토리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선정건수 비율이 16.1%입니다. 레퍼토리 같은 경우 8%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용에서 올해의 레퍼토리 같은 경우 14.3%로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통예술 창작산실 2개 부분 역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2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은 31.8%의 선정률에 지원액 26.8% 지원선정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입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을 보시면 지원신청건수 비율은 신청대비 26.6%고 결정비율은 15.2%로 나타났습니다.

아르크청년예술가지원은 29.5%의 선정비율이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15.8%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에 대한 선정건수의 한계가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과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사업은 69.2%고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프로모션키트지원)은 66.7%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정시공모는 선정률 36.1%이며 지원결정액 비율은 26.6%가 되겠습니다.

아래 별표의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번에 사업별 수도권·지역 신청률 대비 선정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비고란을 보시면 괄호에 11개 사업을 적시했는데요. '19년도 지역선정비율을 적은 부분은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던 지역 최소보장제 적용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지역비율이 어떤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의 지원신청현황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을 보시면 신청현황은 25.6%인데 지원결정현황은 27.7%로 높게 나타났고요. 2019년도 지역선정비율 20% 대비 7.7%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학비평 및 연구조사사업도 작년 18% 대비 27.3%로 되게 높게 나타났고요. 문학집필 공간운영지원은 75%로 작년 80% 대비 적게 나타났지만 워낙 이것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숫자의 가감에 따라서 %가 크게 왔다갔다하고 별도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예술 전시지원사업은 14% 작년대비 22.2%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청대비 30.4%에 미치지 못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연구지원은 기존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예술 비평지원은 작년에 1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11%였는데 이번에도 신청이 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창작산실 공간지원부분은 작년 12% 대비 16.7%고 공간지원 사립미술관은 작년 25% 대비 30.8%입니다. 신청현황대비 다소 줄어들었지만 작년대비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비평연구활성화지원도 작년 10% 대비 올해 15.8%로 전년대비 증가했고 올해 18.5%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레퍼토리는 최소보장제 미적용입니다만 지역 쪽에 최대한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음이 보여 집니다. 7.1%, 11.1%, 14.3%의 지원결정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창작산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의 경우에는 최소보장제 미적용에 해당되지만, 20.6%가 지원결정이 되었고 14% 신청대비 더 선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은 28.2% 신청대비 18.3%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28.1% 신청대비 37.9%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공모로 나가기 때문에 2차 공모와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전반적으로 6.7%의 신청률 대비 4.3%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은 35.1% 대비 34.9%가 지역에서 선정되었구요.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은 36.6% 대비 36.4%가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과 전문인력지원은 약간 감소세입니다만 작년대비 지원신청건수도 많이 줄어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대비 떨어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유지는 한 부분입니다.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은 11.1%가 선정되어서 신청 7.7%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대비는 23%에 해당되고요. 선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이 26.5%로 약 3.5%가 증가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1개의 사업의 최소보장제 적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1.7% 대비 31.8%로 0.1%가 증가되었구요. 이 11개 사업의 경우 작년에는 신청대비 선정결과가 약 0.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증가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향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30일 월요일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선정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발표내용은 뒤의 별첨자료2에 나와 있는 지원심의 추진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능한 많이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공문의 내용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미정산, 부적격자 처리 문제인데요. 정산이 만약에 안 되었다면 결과발표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만 완료되지 않을 시 선정을 취소된다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발표 후 저희가 모르는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회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별첨1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은 문예진흥기금 사업별 심의위원 세부 구성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28개 사업에 대한 총괄 부분은 보고를 드렸구요. 각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년, 성별, 지역, 세부분야, 현직 그리고 각 사업별로 비수도권과 여성, 신진에 대한 비율을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보시면 2개의 심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최대한 안배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각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예술 공통도 비수도권이나 여성, 신진 등을 안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극분야부터 올해의신작은 전담심의위원입니다. 전담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심의위원을 위촉한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과 여성, 신진 비율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레퍼토리도 비수도권, 여성, 신진이 대략적으로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무용분야에 대한 올해의신작과 레퍼토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용은 아무래도 여성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비수도권, 여성, 신진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전통예술도 마찬가지로 창작뮤지컬을 보시면 비수도권이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가능한 이 부분을 배려하려고 협의를 하고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제예술교류/예술의관광자원화를 보면 대략적으로 문학 쪽에서 지역이 안배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잘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역시 저희가 준 가이드에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 배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인력육성을 보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인데요. 여기를 보면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무대, 기획 등 8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교육 사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최소보장제 적용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담심의위원회에 해당되고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구성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시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과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은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28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구성과 지역의 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2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별첨2 자료는 문학분야부터 천천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2020년 정기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들의 결과가 결국 심의결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사항이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2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붙임1의 심의위원 구성현황에서요. 어제 미리 받았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심의위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연극은 여성들이 적지 않은 비중일 텐데요. 연극이 20%. 보통 40%, 50%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연극은 창작산실에서도 20%고 창작뮤지컬과 올해의레퍼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창작아카데미에서도 사실 시각예술은 8:2 정도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각예술 심의위원단은 여성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연극은 역시 여성은 한 분밖에 없고요. 전통예술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지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저희가 후보단 선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여성 심의위원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담심의위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저희가 느끼기에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 저희 문예기금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멘토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전담심의위원들이 하셔야 되니까 약간의 선배인 분들, 그러니까 40대 이내로 많이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치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연극과 뮤지컬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극·뮤지컬 창작산실 부분이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오히려 저희는 최대한 많이 여성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희경 위원

- 후보단에는 많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지역도 보시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과 여성을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결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질문의 요지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 라고 물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이희경 위원

-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본 것입니다.

○김혁수 위원

-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나올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연극협회에서 ○심사를 갖고 지방이 없다고 위원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든 일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지방과 여성을 대거 포진시켰는데요. 나중에 연락을 하다보면 담당부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인원수를 못 채우겠습니다.”,

“모두 못 한다고 합니다.”, “모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든 분들만 현재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특히 뮤지컬은 더 심합니다. 나중에는 인원수 채우기가 급급해서 1지망이 연극이 아니고 2지망이 연극인 분들을 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부터 다시 뽑아야 된다.”, “풀부터 다시 추가해야 되겠다.” 이게 현장의 상황입니다.

○강윤주 위원

-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하게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데요. 아마도 공모를 시작하면 또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질문에 따른 답변이..... 지금 김혁수 위원님이 답변하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심사위원이 그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해마다 그냥 거둬들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뭘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올해 성평등소위를 운영하면서 숫자의 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공모내역 지역 결정현황이라는 것이 예술가들에게도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만 공유를 하나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지원결정 현황은 별첨2자료가.

○강윤주 위원

- 공유가 되는 건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강윤주 위원

- 그런데 공유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시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로 해서 그냥 일반 예술인이 보기에 “무슨 뜻이고 지역은 %구나” 저희는 매년 이것을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냥 일반적인 예술인들은 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는 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유를 하려면 올해 우리가 지원현황이 이렇고 지원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예술인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올해 시범적으로 전담심의위원제를 도입했을 때 취지는 후보단 내에서 심의위원을 보지 말고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요. 1차, 2

차 심의평가까지 연계된 것을 나눠 보자는 취지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꾸 ‘밑질’ 이라고 하니까 사전에 명단도 공개를 해 보자고 해서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 분들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하면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원사업에 신청을 못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담심의위원으로 왔을 경우에는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라 보니까 이 부분을 열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임팩트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저희들이 현재 지원심의를 끝났기 때문에 이번 지원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저희 지원사업 부서가 모두 모여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심의위원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심의위원 리스트를 보니까 모두 스태프, 교수, 대표, 연출가 등 스태프만 계십니다. 이 스태프는 연기자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연기자 출신이고 스태프 출신인데 안배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전담심의위원도 좋은데 스태프와 연기자 출신들을 함께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분야 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극 쪽을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했는데요. 대전은 2인이나 들어가 있는데 호남은 1인도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2인이 들어간 것을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학분야를 보니까 골고루 하셨고 저도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문학분야와 국제교류 쪽에 ○씨와 ○씨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문예진흥기금 문학 심의를 하는데 다른 분야라고 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안 맞고요.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문학 쪽에 어떤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국제교류에서 오라고 하니까 또 심의를 하고, 창작산실 쪽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서 심의를 하는데요.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예술창작아카데미 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국제교류 쪽에서는 선정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참고로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심의위원 201명 중에 중복해서 들어가신 분을 뽑아봤습니다. 9명 정도가 중복이 되고요. 28개 사업에서 이 분들이 가능하면 안 나타나는 게 좋겠지만 나름대로 고려를 했습니다. 단지 28개 사업이 병렬적으로 심의위원 섭외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시각예술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 구성이나 지역, 여성비율에 있어서 작년보다 훨씬 좋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103쪽을 보시면 국제예술교류, 사소한 얘기지만 문학분야 소개와 미술분야 소개의 소재목이 밀려 써있어서 헛갈렸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분들을 살펴보다보니까 제가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똑 같은 레지던시에 여러 작가가 동시에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이 분은 됐고 왜 이 분은 떨어졌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103페이지 10번을 보면 이정화 씨가 ‘아라온호승선 레지던시를 신청했어요. 아라온호는 남극에 가기 때문에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 분이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다른 분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이죠. 거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확인을 한번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유용한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안배 같은 경우에도 총괄 데이터로는 유용한데 세부 각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는 매우 미약한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강홍구 위원

-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네요. 저도 심사위원 추천을 하다보면 지역별로 심사위원 풀에서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디는 추천을 해도 안 되고 어디는 추천할 데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위원 풀 전체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이 부족하면 그 지역의 심사위원 풀을 더 확보해야지 없는 곳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홍구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인력 풀의 보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야지 지금 당장 유의미한 수치를 만들기에는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아라온호 같은 경우 지정을 해서 그 중에 후보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아라온호에 같이 간 작가를 대상으로 2~3명을 추천했는데 3명을 대상으로 해서 1명만 추천해

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명을 뽑은 경우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저희 지정형으로 된 레지던스 사업들은 선발을 저희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중에 후보를 보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계약 조건이 저희가 1명을 보내는 것이 있고 복수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수로 후보를 보내서 그쪽에서 1명만 선택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10쪽에 지역을 얘기한 것에서 광역별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어느 지역은 9인으로 많기는 한데요. 지역 25%로 50명 정도의 수준을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으로 나누었을 경우 3~4명의 평균을 갖게 되는데요.

○김혁수 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수도권 비율이 높아지면 신진의 비율이 떨어지고요. 신진 비율이 높아지면 수도권이 높아집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수도권에 강원도가 2명이잖아요? 연극에서 풀 전체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표로 만드는 것은 외부적으로 좀.

○박종관 위원장

- 현재로써는 조금 더 지역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런 광역별 부분의 표 작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다시 여쭙보는데요. 이런 양적 데이터를 가지고 질적인 분석을 하는 보고서가 해마다 나오나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개선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게 해마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이 맥락에서 보면 지원심의 종합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지원심의 종합보고서에서는 단체의 선정 결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의 구성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윤주 위원

- 이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이지만 전반적으로 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식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를 써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근간이 되어야 할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안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

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매우 필요합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안건으로 따로 올려야 하나요?

○이희경 위원

- 이번에 신설된 부서가 있지 않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공정심의부고요. 사실 지금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심의제도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점을 갖고 분석해서, 사실 오늘 얘기보다는 차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해 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맥락이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수세적으로 정리하시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처음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해 나가면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인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것이죠. 그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공정심의부의 일이 될 겁니다.

○강윤주 위원

- 이 안은 제가 예술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달마다 여쭙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셨냐?”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강윤주 위원님, 그동안은 주로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분석하는 작업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양질의 지원심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심의제도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심의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며 외부로 얼마나 공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전 심의과정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

척은 어떻게든 거기에서 시작된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저희가 공정심의 설문조사라는 것을 2년 전부터 시작했고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어서 시도를 했어요. 올해는 정시공모 28개 사업에 대해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이 제도 자체의 피드백 조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해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금방 눈에 들어오는 보고서가 해마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분들도 장르별 특성이 뭐가 있고, 예를 들어 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별, 여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선출 감사

-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 후보 풀이 지극히 한정적이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김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극은 강원도에서 딱 2명입니다. 그 분도 강원도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아마 서울 쪽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라든가 전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인력관리 측면에서 전담심의위원을 위촉하듯이 찾아서 모시는, 그야 말로 숨어 있는 고수들, 젊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비전이 있고, 40대 젊은 사람 같으면 제한을 두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정에 맞게 완화시키고요. 이번에 공수처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조건을 제약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우리 사무처 내에서 많은 인력을 알고 계시니까 발굴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인력관리 내지는 찾는 작업만 하더라도 심의가 풍부해 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이 어떻게 되고 여성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발생하니까요. 더군다나 자기가 응모를 해야 해서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 발굴, 위촉 이런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상당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희경 위원

- 감사님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20 몇 개를 동시에 했잖아요? 풀은 제한되어 있고요. 주변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특히 지역에 계신..... 제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문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지역, 신진, 여성 부분인데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사업이나 심사에 관심이 없거든요.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등록을 해 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는데 제가 열 몇 명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충분히 심사를 하실 분들을 발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엄청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는데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 하면 예술가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모두 서울로

써놓은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바꿔 달라고..... 전북대의 교수인데 활동은 서울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인력 풀을 강화하는 일은 꾸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정기공모 사업운영 시기를 당겨서, 예컨대 각 연결되어 있는 기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거나 심의위원 위촉 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심의방식을 집어넣었고 지역우대를 위한 최소보장제를 도입한 것은 성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전담심의위원제를 했다거나 공정심의평가관제를 운영했다는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점점 더 큰 의미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에서 저희가 국공립단체 지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국공립단체의 지원이 되었다고요. 이미 국공립 예산이 확보된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민간을 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사업이 현재까지도 국공립에 지원되는 이유는 이 사업의 처음 출발점인 문체부에서 주관할 당시에 국공립에 대한 연수단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위원회로 2016년도에 사업이 이관되면서 민간에 대한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은 국회의 국정감사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받았고요. 현재는 국공립 20% 미만, 민간 80% 이상으로 지원결정 현황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보면 아직도 좌절감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무용 쪽 결과를 보니까 타는 사람이 또 타고 늘 탑니다. 못 타는 사람들은 진입을 못해서 현장의 젊은 예술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몸 바쳐 젊음을 바쳐 해봤자 3D 업종이다.” 그러니까 하면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데요. 타는 사람들은 늘 탑니다. 이건 국민이 세금을 낸 돈이지 나라에서 찍어내서 주는 돈은 아닌데 감사함도 없어요. 너무 당연히 타는 거고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타는 사람들은 꼭 계속 타야 하나요? 안식년 문제를 어떻게 결정했나요? 여러 개를 타는 사람들이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연수단원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신겁니까?

○조기숙 위원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전체적으로 안식년제는 3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정심의부장님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오해가 있어요. 엄연히 공연장상주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이거든요. 그게 3년 이후에 안식년제가 있죠. 안식년제를 논의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갖는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으니 결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죠. 안식년제 문제는 특정한 시기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희경 위원

- 안식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작교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6년 하고 4회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잘 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노하우가 쌓이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심의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여태까지 타던 사람이 아니라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그런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이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제 의견을 완성시키면, 단계별 지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 심의에서 중장기로 올라가서.... 공연과 창작산실을 얘기한다면 단계별로 지원이 되면 좋은데 정채 현상이 있어서 상위로 안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제도가 일방적으로 받는 데만 계속해서 받는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숙 위원

- 그리고 심의위원도 몇 명이 중복되어서 들어갔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돌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데요.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들어가도 무용계는 뻥하니까 “이 팀을 떨어트리면 큰일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팀은 계속 탔으니까 계속 줘야 돼.” 눈치를 보고 떨어트리면 공격을 받으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저는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사업별 지원심의 결과도 역시 대략 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상 옳아 보이는데요.

○나종영 위원

- 위원들이 대충 이해를 하니까요.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지원사업별 심의결과와 관련해서 오늘 담당부서의 부장들이 전원 배석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를 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90개 지원신청 중에서 47개는 형식적으로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세부로 들어가면 지역 10개 중에서 7개가 영남입니다. 호남은 1개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 과정 속에서나 실무자 쪽에서 그것을 알고 한 것인지? 무조건 심의위원한테 던져 주는 것인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마치 지역의 47개 중에서 10개가 됐으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 가보면 10개 중에 7개가 영남입니다.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은 전북이 1개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그동안에 1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떨어트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사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47개 중에서 호남에서 전북이 1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떨어진 곳 말고 10개가 결격으로 되어 있어요. ‘가’는 제가 물어보지 않고요. 82번, 88번, 90번의 결격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왜 결격입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먼저 호남이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비율이 적었고요. 결격사유는 필수자료 미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보통 결격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심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필수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것이 접수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번의 경우 심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감일 될 때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때서야 확인을 한 겁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연락을 해 보셨어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런데 마감 전에 연락을 하기에는..... 왜냐 하면 실무 자료는 우편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00월 00일까지인 소인 유효” 이렇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문학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문학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미비한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필수자료를 최소화 했지만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격 처리된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도 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나종영 위원

- 사업자등록증은 말은 필수자료지만 실질적으로 문예지의 내용을 보고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나 ‘○○○’ 이나 십 수 년 간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된 잡지입니다. 그러면 실무진 쪽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아니면 사무처장한테 우선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지 밑에 있는 실무자가 기회를 박탈한다는 말입니까? ‘○○’ 는 우리나라의 국대급 잡지인데 이해도 안 되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장에 나가는데 유니폼을 잘못 입었다고 “당신은 국가대표가 안 됩니다.” 라고 합니까? 유니폼을 바꿔 입고 오라고 해야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입사시험이 아니잖아요. 우수문예지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평론가들이 아는 잡지라는 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미비 되었으면 전화 1통이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런데 그 모든 판단을 마감하고 나서 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것을 부서 차원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 정

시공모에서 어쨌든 “필수자료에 대한 미제출은 결격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필수자료는 이렇다는 것을 이미 고지를 했고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ですよ.

○나종영 위원

- 확인을 하고 메일로 해서 심의 전에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홍구 위원

- 그것은 아니죠.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자료로 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선정하고 나서 제출 받아도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제도 변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균등성의 차원에서 보면 요건 서류가 안 들어왔을 경우 따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워낙 알려진 단체인데 이런 단체의 권위에 기대서 심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유명한 단체인 경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합니다. 심지어 이 경우에는 모두 내야 하는 서류를 안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몰라서 안 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냈을 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유명한 단체라도요.

○나종영 위원

- 우리가 콘텐츠 문예지를 뽑는다는 말이죠. 내지 않은 것은 잘못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합니까? 예를 들어 긴급출동을 하는 회사들도 5분 안에 도착했는지 유니폼을 입었는지 명함을 쫓는지를 확인하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실무자가 마감이 지났는데 안 갖고 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갖고 오게 해야죠.

○조기숙 위원

- 저는 감히 룰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 대단한 단체라는 것은 알지만 룰을 지키지 못하고 서류를 다 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무처에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종영 위원

- 안 갖고 왔으면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죠.

○강윤주 위원

- 지금 회의록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평성의 차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특정한 단체가 이미 기존에 실력을 인정받았으므로 그 정도 실수는 봐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원기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선정된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강윤주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원칙을 정했어야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지금 이 사안은 되돌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고요. ‘○○’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이미 실수를 인정한 마당에, 인정을 안 하고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강변을 했다면 뭔가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매체는 아예 신청조차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저희한테 사후에 전화를 해서 정시공모를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매년 받았던 단체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같은 잡지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제고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필수자료의 간소화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필수자료로 넣지 않고 사후에 보완해서 받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처의 역할입니다. “사무처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단순히 공모를 하고 규정에 따라서 접수를 받고 마감하면 마감된 내용을 취합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심의 행정 결격처리를 하고 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신청된 내용들을 일일이 보면서 자료의 결격이 없는지 미비한 것이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 주느냐? 그런데 마감에 압박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과연 공정함에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종영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강윤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서류를 받아요. 미비가 되면.

○강홍구 위원

- 그것은 은행이고 우리는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래서 조금 유연성 있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강홍구 위원

- 은행은 대출을 해서 이익을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출판사처럼 훌륭한 출판사가 지원금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 것이냐?” 라고 하면 논의할 것도 없어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규정 위에 군림하는 지원심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정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은행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여기가 입학시험을 보는 곳도 아니고 예술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예술가라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관에서 과연 공정성을 어디까지 범위로 정해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원제도 중에서 서류 등이..... 가뜩이나 e나라도움 때문에 머리도 아픈데 추가 서류를 요구해서 제도를 너무 견고하게 만든 것이라면 제도개선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것은 논의를 해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 부분은 심의제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25쪽의 사업계획 심의기준을 보면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은 지역에 골고루 선정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월성 문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학 분야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문학 분야 균형발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로 해서 지역별 균형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문예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라는 트랙을 별도로 신설해서 특성화 지표를 적용해서 따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고 신청비율에 근거해서 기본 목표 선정건수 안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문예지 선정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안배가 중요한데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호남지역 문예지들의 신청이 적고 선정되는 규모도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 작년에 있어서 올해도 사업설명회를 직접 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지역이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분명히 지역마다 대표성을 띤 우수한 문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규모나 비율이 크게 권역별로 나뉘었을 때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최창주 위원

- 77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분야에서 9개가 '가'인데요. 그 중에 1개가 지방이고 8개는 모두 서울입니다.

○김혁수 위원

- 위를 보셔야 됩니다. 75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최창주 위원

- 여기도 똑같아요. 서울이 4개고 지방이 2개입니다. 안배의 원리가 있었나요? 작품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선택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전통예술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의를 진행을 하면서 모든 장르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은 예술적 수월성을 기반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최소보장제’ 적용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가 발표되고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너무나 사업이 부실하고 역량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억지로 선정하는 것은 심의의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동일한 여건일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의 배려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해달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각 장르별로 보시면 뮤지컬처럼 취약한 분야를 빼고는 나름대로 지역 단체가 1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서 선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아울러 77페이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뮤지컬은 작품을 받아 보았나요? 작곡이 된 극본을 받아봤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대본 등은 전수검토를 할 때 검토하시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창주 위원

- 우리 위원님이 가서 심사를 했지만 보통 뮤지컬 작품은 몇 곡이 되는 작품을 선정했어요? 음악 몇 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뮤지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몇 곡 이상으로 작품을 선정했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음원 10개는 필수 제출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경우 행정결격으로 처리를 했고요. 기본적인 저희 심의기준에 들어가 있는 역량 평가에서 필수자료를 뒀고 초

연 이상의 재공연하는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인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서 스크린을 했습니다.

○최창주 위원

-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뮤지컬 이라는 것은 24곡 이상이 되어야 뮤지컬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알겠습니다.

○조기숙 위원

- 별것은 아니지만 76쪽의 41번과 77쪽의 59번은 동일한 것 같으니까 하나를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떨어진 것이네요.

○조기숙 위원

- 떨어진 것이지만 동일한 것이 2개입니다.

○김기봉 위원

- 이것은 전체 선정건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원신청 건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전체 %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확인해서 같은 거면 하나를 지우고 지표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하나는 개인이 내고 하나는 단체가 냈네요. 동일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같은 것이라면 정리를 다시 하시죠.

○이희경 위원

- 사실 어제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얘기는 했는데요.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작교와 지속연주지원 사업에서 오작교가 이번에 7개 팀이 되었어요. 7팀 중에 4팀이 지속연주를 같이 받아요. 그런데 심사위원도 달랐고 큰 문제는 없는데요. 어차피 하나는 새로운 창작곡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재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기는 한데요. 지속연주가 올해 유난히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받았더라고요. 원래는 창작곡으로 양상블도 많으니까 어찌면 소액다건처럼 많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면서 오케스트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작교에서 7팀 중에 4팀이 지속연주를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배경은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그게 배경이라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음악 쪽에 대표적으로 들어왔던 단체들의 경력을 봤을 때 오작교에서 받고 지속연주에서도 받는 단체들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심의의 참고용 자료로 최근 3년간 지원현황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다만, 여기에서 받았으니까 여기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은 심의기준에 없는 얘기고요. 각각의 사업취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9페이지 하단 마지막 줄에 있는 단체들은 많이 받았던 단체들이거든요. 사실 사업계획으로 보기에 너무 방만하고 진정성이 없는, “당연히 이번에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낸 단체들은 과감하게 떨어트린 부분도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여쭙볼게요. 결국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특정 장르에 대해서 특정 단체의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역량의 차이라고 보이는지요?

○이희경 위원

- 아니요. 이번에 오작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뀐 팀들이 지속연주에서도 또 받았길래요. 바뀌서 다양한 팀들에게 준다는 취지에서 좋게 생각이 들다가 “지속연주에서도 한쪽으로 몰리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심의위원들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심의기준에 반영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벗어난 얘기인 것이고요. 협의를 했던 부분은 작품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출 감사

-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양한 심의제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프로세스나 공정성들은 잘 된 것 같아요. 내용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위원회 지원사업은 경험한 사람들, 페이퍼 작업 등에 숙달된 사람들의 잔치”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감히 이쪽에 접근을 못하는..... 지역이나 열정을 갖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기획 능력이 없는 데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좀 달라진 부분은 청년예술가 부분의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척도를 낮추면서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40%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조기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몰제인가요?

○조기숙 위원

- 안식년제요.

○김선출 감사

- 출판은 원고료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출판사 같은 경우 하나의 권력이 형성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폐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역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령 문예지 같은 경우 문예지가 문학 활동 부분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육성해 주는 게 올바른 사업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계속 성공한 곳에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계속 지역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연속 지원을 할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 과감하게 새로운 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응모율을 높이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광역재단 쪽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도 자기들 사업에 매몰되어서 그런 컨설팅 내지는 홍보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청년사업 외 기준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숙달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비전과 함께 깊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원사업이 우리 사업에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접근조차 꺼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곳은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고 2020년 정기공모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추가 개선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의견을 잘 받고요. 이제 의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조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76쪽의 41번과 77쪽의 59번이 동일한 사업인지 아닌지? 액수까지 동일하거든요. 총 소요액과 신청액까지 동일하거든요. 이것은 즉시 확인을 하시고 수정안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것은 선정결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박종관 위원장

- 의결을 해야 하니까요.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인지 원안으로 의결할 것인지?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아까 말씀하신 지역부분도 단순하게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것을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죠. “권역별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권역별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냥 수도권과 비수도권이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31페이지를 보면 심의회피 내역에 회피사유가 ‘회원’입니다. 회원도 회피사유가 되나
요? 다른 심의위원들도 어떤 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할 텐데요.

○나종영 위원

- 이것도 고쳐야죠. 회원은 회피사유가 아니니까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회피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피와 제척은 다르거든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자기가 회피하고자 하면 회피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특이하잖아요. 다른 분들도 회피를 해야지 왜 본인만 회피를 합니까?

○조기숙 위원

- 회원이라도 관계가 깊을 때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피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척은 남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피를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왜 회피를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나종영 위원

- 회피할 이유가 없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총괄표에서 개선해야 할 지역 부분이 1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지역에 관한 부분이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그냥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77쪽은 확인을 해서 중복인 경우 총계에서 하나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동일한 사업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하나를 제외하시죠. 77쪽을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통계수치도 바뀌어야죠.

○박종관 위원장

- 2번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확인을 했는데요. 하나는 개인으로 신청을 하고 하나는 단체로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번 신청한 것이 맞잖아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동일한 사업이라서 일단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아니죠. 예를 들어 본인이 2개를 신청하면 신청한 것이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건수로 잡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남겨놔야 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을 똑같이 신청하게 되면 2개 모두 걸격이 됩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가' 로 된 것이 아니라 '부'이기 때문에 건수에서는 2개가 모두 인정받아야 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동일한 사업프로그램을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같은 사업 내에 2개를 신청한 것입니다.

○조기숙 위원

- 그러면 더 안 되는 것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2개 모두 걸격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어요.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확인이 되었으니까 10쪽의 동그라미 2번의 지역에 관한 통계표는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의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의결 이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의평도 많이 개선을 한 것입니다. 심의평도 최소한 기금이라든지 여전히 신청 대비 지원에 성공하는 분들보다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많은 현장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에게 희망보다는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런 점이 고려되도록 심의평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결안건은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입니다. 이건은 이윤희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261페이지입니다. 안전번호 788호 안전명은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입니다. 22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김혜인, 최혜자, 허정숙 등 3인은 해촉이 되었습니다. 김인설, 홍보라 씨를 새롭게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조정부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별지로 나눠드린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소위원회 위원은 위촉되실 때 임기가 2년입니다. 그

리고 연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촉이 되신 분들의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내년 2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새로 구성될 때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1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1월에 문체부에서 3차례 공개토론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공모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2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하면 늦어도 5월에는 7기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잔여임기를 채우고 다시 연임을 한다고 해도 7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5월이나 6월까지만 연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회경 위원

- 지난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나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4조 2항의 단서에 보시면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 구성 후 1개월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 회의 때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 위원회가 소위원회 임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른다.”라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회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 다른 소위들도 제가 알기로 임명장을 드릴 때 1년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에 해당되는 건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7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단서가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거든요. 7기 위원회에서 6기 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종료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난번에 현장소통소위원회 문제 때문에 단서조항이 생긴 것인데요. 규정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운영상의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떤 모순이 생기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해촉 위원들을 잔여임기로 하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과 겹치면 활동기간이 몇 개월로 제한이 되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당장 어떤 요인이 있어서 해촉 되는 위원이 있고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유지하려고 하면 위원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규정에 메여서 몇 개월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윤주 위원

- 만약 내년 5월밖에 활동을 못 하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평등 소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져서 그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강윤주 위원

- 그 분들한테 위원회의 대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대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질문은 7기가 4월에 올지 5월에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평등은 일찍 시작을 했고 원래 1년 임기가 2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연장을 하고, 아니면 그때 그냥 7기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위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연임을 하시더라도 7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로부터 1달까지만 제한이 되는 것이죠.

○강윤주 위원

- 저는 성평등 소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연임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계속해서 의향을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술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다른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꺼이 감수하고 서류를 내라고 하면 낼 테니까 그냥 진행을 하죠.

○박종관 위원장

- 지난번 현장소통소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소통소위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활동도 필요한 것이고요. 역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등을 소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구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시면 구성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되는 것이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2개의 의결사항이 끝났고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의 보고사항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결과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보고자료 225쪽입니다.
지난 260차 전체회의에서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계획을 보고드렸는데요. 그 공모계획에 따라서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수를 하였고요. 각 극장별로 대관이 가능한 시간 포함 4개 공연장 613일에 대해서 공모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접수현황은 225쪽 하단에 나왔듯이 165건이고 지난해보다 6건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관심의회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공정심의회와 협의하여 연극, 무용 위원님들께 추천을 외뢰했고 저희들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연극심의회 접수심의회를 4총5인으로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1차 연극 접수에 대한 심의를 저희 규정상 내부 1인, 외부 4인으로 해서 총 5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5인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2차 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5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극과 무용을 심의해서 선정된 1차 결과에 따라서 2차 통합심의회를 진행하였고요. 2차 통합심의회 최종 위원들은 남성 2인, 여성 2인으로 지역을 2인 안배해서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의와 2차 심의는 자료에 있으니까 서면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최종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와 2차 심의를 통해서 총 49건의 대관선정을 하였는데요. 선정하면서 일정이 중복되거나 기간이 다소 긴 것은 심의위원들께서 저희에게 일임해 주셨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228페이지부터는 각 극장별 심의내용입니다.

결정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영순 부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위원

- 아르코대극장은 원칙적으로 축제만 선정이 가능한 것이죠?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정기대관이면 아르코극장 같은 경우 전국단위의 축제를 포함해서만 접수를 했고요. 수시 대관으로 110일 정도 추가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는 축제가 아니고 일반 단체들에게 오픈할 예정이고요. 아르코대극장 같은 경우 축제 플러스 주로 계기성 사업들에 대한 특별한 축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축제만 주면 사실 축제선정 단체는 늘 비슷하거든요. 사실상 늘 똑같은 축제 기획단체만 하거든요. 보통 예술가들은 중견이 아니라 원로가 돼도 아르코대극장을 대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원성들이 있더라고요. 극장 문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축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안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모니터링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축제들의 성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기숙 위원

- 여기에 보면 무용에서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2개로 26일간 됐습니다. 동일 단체가 해야 되는 상한선은 없나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정기대관이 되는 아르코대극장과 소극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중요한 축제는 2개 극장에 걸쳐서 있고요.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축제들은 4개 극장까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아르코대극장에 1개 단체가 2개나 선정되었습니다. 총 26일간이요.

○전효관 사무처장

- 6번과 7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진흥회와 협회는 다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해가 풀리신 것 같네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공모 사업추진계획 일부 변경 보고입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235쪽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보면 259차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 무대예술 해외레지던스 공모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그리고 261차 위원회 전체회의 서면 의결한 후 4명의 무대기술 스태프가 뉴욕 라마마와 체코 안 스테파네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지원규모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현재 지원결정이 된 사항은 지정형으로 미국 뉴욕 라마마에 2명, 체코 안 스테파네에 2명씩 나가서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체코 안 스테파네에 가게 된 2명의 지원신청자가 지원신청금액을 최대 2,00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에 못 미치는 지원신청액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규정에 따르면 지원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이상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비를 15% 필수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기술분야의 지원사업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지원신청한 분들이 그런 부분을 누락해서 저희가 국제교류부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지원자가 납부할 금액인 15%를 차감한 금액으로 두분을 합쳐서 316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별도로 해당 단체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승욱 인력개발원장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늘 회의 말미에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보고안건으로 넣고 대개는 그냥 문건으로 보고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꼭 필요하거나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논의를 이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여러 개의 소위원회 활동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성평등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평등지원소위에서는 3차 오픈데이블이 열리는데요. 1월 9일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원사업을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날 이야기가 될 내용이 여성 예술인들의 경력단절과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제도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력 복귀를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도 모셨고요. 여성단체연구원에서 저희가 3차 오픈데이블을 위해서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전 간담회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 예술가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그 이야기가 다시 1월 9일에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성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경력 복귀를 도와주는 지원정책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실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들에게 공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예술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3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7일, 20일, 30일에 공청회가 진행되고 저와 김기봉 위원님이 각 소위를 대표해서 소위에서 생각하는 예술위원 선정 과정의 개선안 등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장이 해야 할 말씀까지 다 해 주셨는데요.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조심스러운 것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에서 다소 객관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도 있을 것이나 저희가 당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1월에 개최되는 3차례 토론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 모임의 사회는 저희 위원회 사무처장님이 보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라도 현장의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성평등 소위의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경력 단절 등의 내용이 있는데 기획기사와 매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경력 단절 문제는 예술인복지재단 쪽에서도 하거든요.

○강윤주 위원

- 예술인복지재단에도 소위가 있어서 같이 연계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같은 예술인 범위에 있어서 경력 단절의 문제를 복지제도로 푸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 제도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한 대로 이것이 대외적 파급효과로 확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전효관 사무처장

-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공감시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리고 그날 모임은 일부러 유아도 동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오실 겁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술위 쪽에서도 보도 자료를 뿌려주세요. 언론들이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여성 예술가들이 경력 단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이 눈물, 콧물을 닦으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말 한국의 성평등 의식 같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윤희 부장 혼자서 힘드시면 위원회 문학시각본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대응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강윤주 위원

- 참고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윤희 부장님과 김윤희 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도 올해 6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조사연구를 추진하기로 했고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설립 목적 및 미션에 맞지 않는 국회의 일방적 배정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에 대해서는 마땅한 분이 없어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있다가 논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페스티벌 현황 연구는 심정민, 장지영 선생님께서 페스티벌의 수준, 레벨을 무용과 연극 파트로 나누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개 다 1월 말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에 대해서 공유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희경 위원

- 예,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에서는 7차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했구요. 그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소위가 마무리 될 때 저희 사업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2가지를 제안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역의 기획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예술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사업을 쪽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이 모두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이고 굉장히 1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매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aPD 아카데미에서 하는 매개 인력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한지협이나 지역문화재단과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에 하나씩 만드는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유용해 보이는데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통예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장르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하려고 구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후원사업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들의 민간후원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구상 중입니다. 오늘 담당 부장님이 안 오셔서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 소위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는 9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르코2030에도 가치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나 발주하면서 그 분들과 같이 가치 확산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 사업 중에 순회사업을 구체적인 매개로 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인터뷰도 하고 그 분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듣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 보고자료는 12월 말에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1년이 끝날 때쯤이면 강홍구 위원님이 어떤 내부 보고서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도 참여하셨던 소위의 참여자들이 예술가치확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가치를 확산한다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적이라서 이희경 위원님한테 소위원회를 맡겨 놓은 것에 대해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희경 위원

-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사실 예술가치확산이라는 것은 후원센터가 담당으로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단지 후원의 문제가 아니라 후원정책파트에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닌가?

○박종관 위원장

- 옳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사무처백업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제 부산문화재단이 새롭게 비전을 냈는데요. 광역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큰 목표를 두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지원사업의 구조를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확산으로 하면서 공동체의 행복을 예술이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비전을 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희도 그 논의를 조금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임지가 없어서 몇 달 더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정책파트나 사무처에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업평가소위원회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위원

-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가는 심의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평가와 더불어 심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차이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개

선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한 번에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심도 깊으면서도 엄정하게 해서 그 평가가 그 다음 사업에 환류 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현장에도 가보려고도 했고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과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역지사지를 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정확한 평가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마련된 지침을 갖고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축제사업의 현황 및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기가 들어오면 소위원회가 어떻게 통합되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지정사업, 위에서 결정해서 우리의 성격과 맞지도 않는 것들을 지정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써는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과 소통,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를 할 때 다른 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저희 평가위원회에 한문연 회장으로 가신 분이 있어서 한문연의 조직과 인원을 잘 활용해서 보다 심도 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협치 문제와 지정지원에 대한 논의 등 광범위한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공유될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협력 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올해 10차례 개최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김기봉 위원

- 지역문화와 지역예술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문화는 전달체계가 잡혔습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중앙에 구성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제 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과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에 광역과 기초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통한,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전달체계가 잡혔는데요. 지역예술과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르코혁신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지협이 혁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예술 부분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체부에서 지역예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예술국은 장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역국은 생활문화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예술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지협을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의 사업공유와 평가공유를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술지원의 중앙단위와 광역 그리고 기초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어서 문화정책 지원체계와 예술정책 지

원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화정책은 버텨업으로 기초에서부터 지원의 방향과 내용들이 선정되어야 하지만 예술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제 발굴 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정하고 국가예술위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예술위원회의 전망은 독려하고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매우 의미미한 논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성평등 소위에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강윤주 위원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6기의 임기가 매듭 된다면 6기 위원회 성과 중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왕성한 소위원회 활동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이 자체로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실무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이어가는 성과들도 계속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요. 크게 보면 아르고비전 2030을 강화하고 보장하고 결과물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횡적, 종적 협치를 이루면서 7기 위원회에 연착륙해야 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시간에 쫓겨서 함께 논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소위원회 성과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서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2020년 문예진흥기금 전년대비 증감 현황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도치 않게 저희 예술정책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겹쳤네요.

우선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해서 국회의결 주요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회에서 지정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문제점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입니다. 저희가 연구 범위로 삼고 있는 것은 15년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15년과 16년의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까지 4년치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금방 문제점이 보입니다.

‘수로왕과 허황후’ 창작스토리를 보시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구 의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4년째 해마다 5억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진짜 문제로는 무용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콩쿠르입니다. 콩쿠르는 창작사업이 아니고 상업적 경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독도사랑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년째 2억 5,000만 원씩 지원

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의 대표자는 외교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명인사들을 이사로 집어넣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국제적으로 알린다는 미명하에 이것을 지원받아서 공연과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배경과 동기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윤이상 평화상도 올해 처음 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알겠지만 평화상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배후를 뒤져보면 불교재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이상 재단이 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아트페어도 2년째 아시아 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시아 아트 페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상업적 성격으로 팔아먹는 전시입니다. 이런 것을 왜 지원해야 합니까?

그리고 국제일루전페스티벌은 부산 해운대에서 하는 마술공연축제입니다. 이것도 3년째 받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 왜 우리가 지역축제에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일단 보고서를 1월 말까지 세밀하게 작성한 다음 그것을 갖고 위원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수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표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이희경 위원

- 예, 음악과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온 2개 사업은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서 알아봤는데요. '수로왕과 허황후'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지역구 의원이 5억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아마 가야사와 관련되어 지역의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창작산실은 저희의 얼굴과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작산실의 오페라부분에는 3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너무 적죠.

○이희경 위원

- 적은 것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차에 5팀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그 팀이 그 다음에 2팀이 올라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5억을 쏟아 붓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작오페라는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을 찰러서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많이 했어요. 어떤 작품도 레퍼토리화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 봐야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윤이상 평화상은 불교재단이 아니라 윤이상 평화재단이.

○강홍구 위원

- 평화재단에 불교 측근이 많다고 합니다.

○이희경 위원

- 불교 측근이 아니라 ○위원이 다시 장을 맡으셨어요. 평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런데 윤이상 평화상은 ‘윤이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지 예술가와 아무런 상관없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평화상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를 찢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으로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상’을 주려고 하면 통일부로 가야지 왜 우리 문예진흥기금으로 이 사업을 줘야 하는지?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홍구 위원

-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알려진 것은 위원회 내부 차원에서 한 두 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이희경 위원

- 저는 사무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이런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국회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무처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 본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국회나 의회에서 증액하는 예산들은 범주나 사업내역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국가나 국가기관에서는 국회의 심의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서 수용 여부를 보는 것인데요. 기재부가 수용하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간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는..... 예를 들면 도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매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구의 민원사업 때문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예산편성권을 행정부 모두가 가진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되거든요. 국회나 의회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편성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를

테면 국회편성문제나 요즘 나오는 풀뿌리에서 참여예산을 반영해 주는 문제는 국가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심의결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국가기관 자체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희경 위원

- 아까 감사부에서 ‘보조사업 관련 정부정책 주요사항’이라는 것을 나눠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위험 사업 후보군 마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들이 모두 고위험 사업 후보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예산이 모두 나가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면요. 그러면 관리를 엄격하게 하거나 해서 데이터로 비판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강홍구 위원

- 그러기 위해서 저도 사업보고서, 실적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그것도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굉장한 특혜죠.

○이희경 위원

- 그러나 저희를 통해서 나가면 똑 같이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혁수 위원

- 2017년도 연말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블랙리스트를 처벌한 정권이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준비가 안 돼서 기자회견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국가예산법과 국회예산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강홍구 위원

-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국회예산법과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희가 할 일은 얼마 되지 않는 문화예산 가운데 국회의원이 지역성 사업으로 부당하게 집행하고 지정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만들어진 2005년 일시적으로 이런 예산이 안 내려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2017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 위원회 자율권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통로로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 사업의 색깔을 완전히 입힐 수 없는 것,

혹은 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견을 내는 게 옳아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할 것인가는 강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고 1월 말에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의 액션플랜을 정하고 사전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가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런 지경에 있다는 것은 현장예술계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해서 오페라 심의를 거치는 반면에 어디에서 움직이든지 모르는 방식으로 5억씩 가져가도록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라는 이름을 걸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위에 가 있으니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현장예술계에 알리고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추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창주 위원

- 무용수지원센터가 13억이죠? 이것을 제가 위원장 대행할 때 결제를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눈먼 돈’, ‘택배회사’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인 저한테 전혀 알리지도 않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항목들은 위원회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직원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야 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기가 끝나지만 이것을 다시 얘기해 봤자 이 말이 성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눈먼 돈’, ‘택배회사’ 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기숙 위원

- 저도 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무용계에서 전문가지원센터에 장기집권, 그리고 비민주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센터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고 특정인이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13억을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추가 논의가 있습니까?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지금 본의 아니게 국회지정사업인 ‘수로왕과 허황후’, ‘국제무용콩쿠르’, ‘독도사랑축제’, ‘아트페어’, ‘일루전페스티벌’ 등은 전부 공연예술부 소관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과의 대응을 할 때는 위원회 내에서 의결 등을 하게 된다면 사업 부서를 배정하지 말아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정확하게 수용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 각 부서에 배정을 해 주셔야 현장 대응에 있어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1월 이후에 결정이 된다면 결정 이후에 각 해당 부서에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획조정부장님 1월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희경 위원

- 이 예산은 어떻게 오는 건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국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의결한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편성된 사업이고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대로 수순 상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국회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의결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완성도가 낮을 경우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방법상 그런 것은 있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예를 들어서 집행계획을 올리잖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에 준해서 제출해야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 사업과 지원대상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장 본부장이 이야기 한 대로 이런 논의가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예산 은 1월 안에 집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의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회 의 결절차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고요. 사업시기에 따라서 제출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어차피 1월이 되어야 의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차피 차기 회의도 정해야 하는데요. 1월 31일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31일 차기 회의를 잡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1월 위원회에서도 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1월까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나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그 단체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회로부터 의결된 사항을 받았으니까 이 단체들에게 연락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면 당연히 부실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강화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이희경 위원

- 그런데 그 사업계획은 누가 검토를 하나요? 사무처의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1차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내용은 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하고 집행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급한 장치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은 해당 장르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사무처와 검토를 통해서 이른바 사업의 계획이 일정 수준에 있는지를 검토하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기숙 위원

- 저도 절차는 공모사업과 동일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야 평가소위를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에 관해서 앞으로 이런 전례가 적어지거나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거라면, 혹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연구가 되어야 하고 대응방법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예술계에는 이런 지경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범위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월에 추가 논의를 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강홍구 위원

- 그렇게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보조사업 관련 정부정책 주요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우선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2가지로 국가보조금 관리 방안과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채정 환수법 시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몇 가지를 어제 공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 결정서에 제재·벌칙 명시 의무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제재부가금(환수액의 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벌칙 등을 명시적으로 의무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수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부분인데요. 물품 및 용역구매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 간에 수의계약으로 자유롭게 했는데 그것을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단체들이 많이 힘들어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시 시점 명확화라고 해서 기존의 사업부서 또는 각각 공공기금의 주체들이 제량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검찰 공소 제기 시까지 환수결정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4)번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됩니다. 그동안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자율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고발을 하게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조금카드 부수수익과 관련되어 반환여부 그리고 보조금 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부터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에 대해 집중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문화누리카드가 이 안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해서 연중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평가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은 확정은 아닌데요.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등도 평가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역협력형 사업이 평가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입니다.

우선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공재정으로 민간에 위탁되는 또는 지원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허위청구 등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재금이 최대 5배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재금이 부가되고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고자는 보호해 주며 최대 보상금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새롭게 준비할 것도 많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보조금인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 소액다건이다보니 물품 및 용역구매처럼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이 발생했을 때..... 단체들이 국가계약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처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해서 집행할 때도 이 규정을 다 지키라는 겁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굉장히 강력해 지는 것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현장에서 아무래도 무대세트 등이 억 단위로 해서 수익계약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또 한 가지는 저희 공연 쪽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은 보조금이라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단체에 귀속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어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파급효과는 심각해 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참고로 e나라시스템을 통한 조정기구 편제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108건 21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고발

한 단체의 건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재부의 방침은 보조금 강화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근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부서로도 작년대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6개 단체를 조사했는데요. 사실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향후 정부가 강화하는 방안이라서 사무처에서 준비할 것들이 꽤 많고요. 2020년도 정부(안)을 안내할 때 시스템 상으로 빨리 준비를 하고 빨리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사무처가 대응해야 할 것이지, 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이라고 하면 변하고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야 보고 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이것은 우선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공유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요. 다만, 문예진흥기금을 심의 받아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원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월 정기회의 일정은 1월 전체위원회가 1월 31일 금요일인데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할까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020년 전체회의는 1월 31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66차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회의종료)